



새로운 자동차보험 시대의 도래

김진억 수석담당역

선진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첨단안전장치 등 자동차 기술의 발전, 대체 이동수단의 증가, 비전통적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장규모 축소와 구조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함.

- 최근 연구¹⁾에 의하면 선진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대체 이동수단의 증가, 자동차 기술발전, 자동차 운행 정보의 실시간 이용, 디지털화, 규제변화 등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구조도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선진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는 최악의 경우 2030년 40%, 2040년 70%까지 줄어들 수 있음.
 - 보수적 전망으로도 선진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2030년 20%, 2040년 55%까지 축소될 수 있음.
 - 이러한 시장 축소의 원인은 충돌방지 및 속도관리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차 사고의 감소와 대체 이동수단의 확산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감소임.
 - 또한 첨단안전장치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장치 제조사와 완성차업체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게 되어 이 또한 자동차보험 시장 축소의 한 요인이 될 것임.
 - 한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기업용 자동차보험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변화에 따라 선진국 자동차 시장에서 개인 자동차보험의 규모는 현재보다 2030년경에는 35~60% 축소될 수 있음.
 - 새로운 이동수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업용 자동차보험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이 개인보험에서 기업보험으로 전환되어, 2015년 80%이던 개인용 자동차보험 비중이 2030년에는 50%, 2040년에는 30%로 축소될 것임.
 - 또한 IT기업, 완성차업체, 통신회사와 같은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 중 최대 55%는 비전통적 대형 기업들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구매하게 될 것임.

1) Boston Consulting Group(2016. 10), "Motor Insurance 2.0",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automotive-innovation-motor-insurance-20/>.

■ 이러한 선진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축소 및 구조변화는 아래와 같은 추세에 근거함.

-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자동차호출(Ride-hailing)²⁾”, “자동차함께타기(Ride-sharing)³⁾”, “자동차공유(Car-sharing)⁴⁾” 등 대체 이동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내·외부 장치의 기술혁신이 확산되고 있음.
 - 충돌방지 장치부터 완전 자율주행차에 이르는 자동차 내부장치 기술과 사고분석 및 속도 제한을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외부장치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감소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에서 커넥티드카, 스마트폰과 앱, 빅데이터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가 자동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분석 방식이 진화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디지털 소비로 전환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기술발전으로 보험처리를 디지털화하고 있음.
- 자동차사고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 및 속도 제어 정책강화와 자율주행차 도입 등 정부의 규제변화로 기존 자동차보험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증가됨.

■ 자동차보험 수요의 급락과 혁신적 대형 기업들의 자동차시장 진입 등으로 기존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먼저 보험사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사용하며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있음.
- 한편 완성차업체, 데이터 취합 전문회사,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 등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고객데이터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도 있음.
-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인접 분야로 진출하여 손실된 자동차보험 매출을 대체하거나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kiri**

2)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우버(Uber), 그랩(Grab)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개인과 개인 간의 공유 거래를 통해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서비스로 카풀과 유사함.

4)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로, 개인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일종의 시간단위 렌터카 서비스임.